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성과 및 나아갈 길



안전보건공단 국제산업보건대회 사무국장

배 계 완

금년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가 93개국 3,535명이 참가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의 대회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906년 1회 대회 개최 이후,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국제산업보건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Occupational Health)가 개최기관과 함께 3년마다 개최하는 산업보건분야 최대 규모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국제대회이다. 산업의학, 보건, 심리, 취약계층 근로자 건강보호 등 산업현장의 주요 이슈를 총 망라하는 국제회의로 100여 개 국가에서 정부, 학계, 산업안전보건 전문기관을 대표하는 관계자와 사업주, 근로자 3,000여 명이 참석하여 6일간의 대회기간동안 최신 지식과 정보를 나누고 현안에 대해 함께 토의하는 장이다.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는 110년 대회역사상 참석자가 가장 많았던 “역대 최대 규모” 이면서, 참석자들로부터 운영과 내용면에서 “최고의 대회” 라는 찬사를 받았다. 2012년 칸쿤대회 보다 300여 편이 많은 1,631편의 초록이 접수되었으며, 참석자의 1/3에 해당하는 1,200여 명이 기조연설과 세미기조연설, 특별 및 구두세션 등 각종 세션에서 발표자로 참석하여 그간의 연구성과, 지식, 경험을 나누고 현대 산업사회의 도전과제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등 세계 산업보건의 발전에 큰 획을 긋는 활발한 교류활동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

이번 대회는, 학술적 측면 외에도 감동과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은 축제였다는 평이다. 개회식 식전공연에서는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세계를 하나로” 라는 대회주제를 IT기술과 한국 전통문화를 접목



한 퍼포먼스로 표현했는데, 이에 대한 평이 아주 좋았다. 또한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한국의 밤”에서는 부채춤 등 한국 전통무용과 함께 헤민 스님의 한국학 강의, 도심 속의 천년고찰 봉은사 달빛기행 등의 프로그램이 호평을 받았다. 한국 방문이 처음이라는 David Michaels 미국 OSHA청장은 한국의 밤 참석 소감을 묻는 필자에게 “처음 만난 한국을 사랑하게 되어버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대회가 시작되자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참석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신속한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 이에, 대회사무국은 “메르스 예방대책과 조치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의료진을 배치하는 등 발빠른 대응으로 참석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다. 그 결과, 환원리셉션, 환송만찬 등의 친교행사와 모든 학술 프로그램이 자리가 부족할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회 특징: 글로벌 정책 포럼과 서울성명서 채택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는 “세계 산업보건의 글로벌 하모니: 세계를 하나로”를 주제로, 개회식과 폐회식 등 공식프로그램과 다양한 학술프로그램, 선진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업들의 전시회, 쇼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국제회의의 취지에 걸맞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줄여 세계 모든 근로자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행복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안 이슈에 대한 주제토론과 세계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 등 50여 개의 다양한 주제로 350여 개의 학술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히, 세계 산업보건의 발전방향과 미래에 대한 정책 토론으로 Jorma Rantanen ICOH 전임회장과 Kazutaka Kogi 현 회장의 사 회로, ILO, WHO 등 국제기구 대표자의 기조연설과 미국 David Michaels OSHA 청장 등 각 대륙별 정책입안자들의 패널토의가 있었다. 급변하는 산업사회와 작업환경에서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는, 산업보건 정책과 규제, 서비스와 실행이 국제적, 국가간, 정부-비정부 기관, 관계 전문기 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의 연장선에서, 이영순 대회장과 Kazutaka Kogi ICOH 회장은, 폐회식에서 세계 모든 근로자가 안 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학자, 전문가, 각 국의 정책입안자들 모 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서울성명서를 채택했다. 서울성명서의 이행 결과는 201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개최되는 차기대회에서 확인하고 후속조치를 취하게 된다.

서울 대회의 의의

2008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18회 세계산업안전보건대회에서 서울선언서를 채택한 이후 각 국의 많 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 근로자의 4/3은 산업재해 및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실례로, 2012년 파키스탄과 2013년 방글라데시 의류공장 화재사고로 1,500여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수백여 명의 근로자가 치명적인 재해를 당하는 등 수많은 개발도상국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열악한 작업환경의 고위험직군에 종사하며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 가고 있다. 선진국의 근로자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 개선은 복지차원에서 점점 높아지는 반면, 개발도상 국은 오히려 점점 퇴보하고 있어 그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중간에서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모델로, 개발도 상국에게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화로운 세계 산업보건 발전을 위한 통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 참 석자들은, 이번 대회가 단순히 학술발표의 장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산업보건의 현황을 점검 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1970년 초반부터 대회에 참석해왔다는 Jorma Rantanen 전임회장은, “이제까지 참석했던 ICOH 대회

중 가장 충실한 내용으로, 가장 훌륭하게 치러진 최고 수준의 대회” 였다고 극찬했다.

미래의 산업보건과 남겨진 과제

이번 대회에는 제30회 아시아태평양산업안전보건기구연차총회(APOSHO 30)와 제25차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WHO-CC)-글로벌 네트워크 회의, 그리고 제25차 한중일 산업보건 학술집담회(The 25th KCJ Joint Conference on Occupational Health)가 함께 열렸고 이 또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한국과 국내 산업보건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다. 비단, 이미지뿐만 아니라, 대회의 성과가 한국과 주변 국가들의 실질적인 산업보건 수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급격한 국내외 환경변화로 인한 안전보건 분야의 도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비점이 산재해 있는 만큼, 앞선 선진국의 모델을 참고하고 발전시켜 우리나라 현 실태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공유하여 미래에 대한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우리의 축적된 기술력을 여러 개발도상국과 공유하고 전수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 없이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도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데 대한 국제적 기여이며 의무이기도 하다. ☺